

옛 시대를 담아
현 시대와 잇다

서울로 7017

7조 | 문화콘텐츠와창조적상상력

김연희 김태호 김현성 박하림 신지웅
여민준 임승찬 차안톤 최인지 황승호

목차



서울로 7017 개념과 배경

선정 이유
역사·문화적 의미



서울로 7017 현황 분석

특징
구현된 스토리텔링 상황



서울로 7017 개선 방안

한계점
개선 방안

서울로 7017 개념과 배경

01 | 선정 이유

02 | 역사·문화적 의미



서울역 주변 지도



서울로 7017 전경

서울역 인근은 대한민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한 곳이다. 버스 환승 센터, 택시 정류장, 다양한 지하철, 기차 등 여러 교통수단이 서울역을 지난다. 즉, 서울역은 서울에서의 첫 발을 내딛는 장소 혹은 경유지로서 **서울의 첫 인상**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울역 주변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볼거리 중 가장 가깝기에, 서울로 7017은 **관광지**로서 좋은 입지를 점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의 **1970년대와 2017년을 잇겠다**는 취지가 훌륭하다. 한 예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똑같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구 서울역사와 송례문의 주변 경관은 확연히 달라지고 현대화되었다. 서울로 7017에서 이 두 곳이 대표적으로 보인다는 점만 보더라도 과거와 현재를 소개할 수 있는 길로써 기능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답사 결과, 처음의 취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서울의 1970년대와 연결 짓는 듯한 공간 구성은 보이지 않았다. 장소에서 얻을 수 있는 이야기가 없었기에, 단순히 고가도로 위에 지은 공원이라는 인상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우리는 서울로 7017이 **개선 과정**을 거친다면 더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느꼈기에 이번 과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역사적 의미

서울로 7017은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품고 있는 공간이다. 서울로 7017은 본래 퇴계로에서 동자동, 만리재에서 퇴계로까지의 구간을 포함한 **고가도로**로써 1970년대 한국의 산업 근대화 상징물이었다. 이후 45년 동안 서울의 상징적 구조물로 자리 잡으며, 시민들에게는 추억이 담긴 길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서울역 주변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민주화를 위한 학생들의 집회 장소, 구 서울역사 등 근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들이 한 눈에 보인다. 더 나아가, 1970년대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현재의 모습까지 담아내고 있다. 보행자들은 차가 지나다니고 고가도로의 모습을 회상하는 동시에, 화려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의 공존**을 느낄 수 있다.

문화적 의미

다양한 꽃과 나무로 가득 채워진 **공중 정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심 속 녹지와 보행의 기쁨을 제공한다. 바쁜 길을 걷다 가도 자연을 보며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다.

또한, **동네와 동네를 잇는 소통의 의미**가 존재한다. 서울로 7017은 남대문시장·명동·남산과 서울역 서쪽을 연결하여, 목적지가 다르더라도 한 공간에서 같은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서울로 7017 현황 분석

01 | 특징

02 | 구현된 스토리텔링 상황



1970년에 준공되어 서울역 동부와 서부를 잇던 **고가도로**를 **재활용**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보행길로 만들었다.

서울로 7017이라는 이름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17m 높이의 고가도로가, 2017년에 17개의 사람길로 재탄생했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서울에 서식하는 식물들을 ‘가나다’ 순에 따라 화분 형식으로 심어 고가 전체를 **수목원**이자 나무로 만드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다.

매주 서울로 7017 이주의 식물을 선정하는데, 5월 4주차의 서울로 7017 이주의 식물은 장미이다.



구현된 스토리텔링 상황

고가도로를 공중 정원으로 조성하는 “서울 수목원”이라는 대표 컨셉트 아래, 도시 활동 유발 공간이자 주변 지역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기획하였다. 식재는 서울에서 생육 가능한 모든 종류의 식물을 가나다순으로 배치하였다. 이는, 주변 지역 녹화사업의 근거이자 기준으로 이어졌다.

보행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들이 서울로 7017의 전 구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배되어 발생하게 하였다. 또한, 주변에 연결 가능한 공간 혹은 건물과 서울로 7017을 물리적으로 연결하여 도심 활기의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 각 구간마다 다양한 폭의 너비를 고려하고, 화장실과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공 편의 시설물, 운영관리사무실 및 관수시설 등을 설치하였다. 더불어, 서울로 7017 주변의 학생, 거주민, 회사를 위한 프로그램, 노숙자를 위한 정원사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했다.

**이는, 향후 개발의 기회를 열어 두고 있는 서울로 7017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성 및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로 7017 개선 방안

01 | 한계점

02 | 개선 방안



한계점

정확한 범위

첫째, **입구**를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명확하게 서울로 7017의 시작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나 입간판이 없어, 서울역에서 이 곳으로 찾아가려는 많은 조원들이 길을 헤맸다. 이는, 서울로 7017의 **정확한 범위**를 파악하는 것에도 혼란을 주어, 도심 속에 위치한 과거의 모습을 통한 대비 효과도 자연스레 낮아졌다.

1970년대 표현

둘째, 본래의 **취지**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1970년대와 현재를 잇겠다는 의미를 느끼기에는, 도심 속에 위치한 조금 독특한 식목원 같은 이미지가 더 강했다. 특히, 투명창으로 되어있는 벽면의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다. 길 중간중간에도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혹은 설명이 부재하여 **즉각적인 비교**는 불가하다.

SNS 홍보

셋째, SNS를 활용한 **홍보가 부족**하다. 바쁜 일상생활 속 잠시나마 여유롭게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은 크게 느껴졌다. 다만, 대부분의 조원들이 이 장소를 처음 들어봤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청년들에게 소개될 만큼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SNS, 이벤트 등을 시도한 흔적은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다.

서울로 7017

서울로 7017

우리는 이것을, 추억의 거리 간판 이미지를 참고하여, **1970년대 스타일의 표지판**으로 제작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도심 속에서 확실하게 구분되는 과거의 모습을 눈에 띄게 하여, 서울로 7017의 가치를 더욱 확연하게 느낄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밤에도 잘 보일 수 있게 표지판 주변에 가로등 혹은 조명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레트로한 감성의 간판에 **네온사인**이라는 현대 기술을 접목시켜 과거와 현대의 공존이라는 취지를 부각할 수 있다.

산책로의 목적으로 조성된 곳이므로 출구를 나타내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서울로 7017이 **시작되는 부분**이라도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정확한 범위**를 알려주면 좋겠다.

특히, 서울역 파출소 옆 입구는 지도를 보면서 가도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표지판의 필요성**이 더욱 느껴진다. 서울역에서 이 곳을 찾아가는 사람이 가장 많다는 점에서 옆 그림과 같은 간단한 표지판 혹은 간판이라도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로 7017에는 들려요, 신비해요, 보여요 총 3가지 컨셉으로 호기심화분이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AR기법, 타입 랩스와 같은 다양한 기술을 통해 서울의 소리, 야경,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창의적인 기술과 시도는 21세기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 내부의 내용마저도 너무 현대적인 것으로만 구성되어 취지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 시설물의 내부 콘텐츠를 1970년대와 연결 지어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과거에 기차가 지나가던 소리, 1970년대에 서울로 고가도로에 차가 지나가는 영상 등 과거에 서울역 주변에서 듣거나 볼 수 있었던 것들로 호기심화분 안의 내용물을 꾸미는 것이다. 즉, 시설물 외부는 현재이지만 내부는 과거로 되어 있어, 보행들은 자연스럽게 비교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더불어, AR기법을 통한 학습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지식 전달과 진정한 공존의 효과를 모두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비어 있는 유리창**을 시각적인 요소들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현재의 시선으로 보이는 모습 근처 벽면에 과거의 사진을 뚜렷하고 크게 게시하면, 즉각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게 다가올 것이다. 대표적으로, **구 서울역사와 송례문의 옛날 사진**을 벽면에 전시해 놓으면 방문객들이 차이를 확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현재도 구 서울역사 사진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크기가 너무 작고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완할 필요가 충분히 느껴진다.

더불어, 서울로 7017에 대한 **설명**을 크고 잘 보이는 색깔로 제시하면 취지와 의미를 파악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길 어느 부분에도 특별히 이 장소를 설명하고 있는 텍스트를 찾아볼 수 없었다. 대부분의 유적지나 관광지 초입에는 그 장소를 설명하는 글이 간단하게 적혀 있다. 물론 안내소가 존재하긴 하지만, 길을 걷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게 **팸플렛 혹은 설명판**을 준비하면 장소의 의미와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합니다